

2024년 11월 10일의 소식

2024 표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나에게 주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3절]

애틀란타  
새**초**복교회



2024년 11월 10일 청년부 예배

##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경배와 찬양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 이름 찬양 한나의 노래 마음의 예배	Behold
기도		송강현 형제
성경봉독	사무엘상 1장 19절 - 2장 11절	드라마 바이블
말씀선포	기도응답,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최동현 목사
헌금찬송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봉헌기도		최동현 목사
축도		최동현 목사
교회소식		운영단

## 공동체 소식

1. 할렐루야! 새축복교회 뉴블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교회 / 사역 소식
  - 오늘 친교 | 여명숙 권사님과 교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 새축복 바자회 | 11월 9일 어제 계획했던 바자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좋은 날짜를 계획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밀알선교 | 11월 16일 토요일 밀알 봉사가 있습니다.
  - 연합예배 | 11월 24일 추수감사주일
  - 금요일예배 방학 | 11월 22일 / 11월 29일
  - 11월 감사의 달 |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3주차에 걸쳐 한해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1주차: 셀원들에게 감사 표현하기
    - 2주차: 나의 인생에서의 감사 나누기
    - 3주차: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기
    - 감사노트 3가지 작성 후 본당 감사보드에 부착하기
  - 결혼을 축하합니다!
    - 11월 23일 (토) Kevin & Maria
    - 11월 23일 (토) 이해천 & 강성경 | 한국

## 예배 위원

DAY	대표기도	뒷정리
11/10	송강현	럽셀
11/17	송윤숙	예수파셀
11/24	연합예배	연합예배
12/01	TBD	럽셀

## 새축복교회의 핵심 가치

말씀 공동체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공동체 (엡 4:11)
치유 공동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 (엡 4:12)
양육 공동체	영적 성숙으로 장성하는 공동체 (엡 4:13, 15)
훈련 공동체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 (엡 4:11)
선교 공동체	복음으로 땅끝을 품는 공동체 (엡 4:11)
셀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엡 4:16)
중보 공동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는 공동체 (엡 6:18)

##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장년예배	오전 10시 40분
주일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화-금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7시

## 헌금 안내

Venmo	@newblessingchurch
Zelle ID	newblessingchurch.atlanta@gmail.com

## 양육과 훈련 안내

- 새가족 교육 (3주)
- 세례자 교육 (5주)
- 결혼 학교 (4주)
- 통독 훈련 (매년 1번)
- 셀 성경공부 (매주 예배 후)
- 밀알선교회 (매주 셋째주 토요일)



[이 질문지 안에 있는 질문들은 “대화과 목상을 돕는 질문” 들입니다. 시험문제와 같이 기계적으로 모두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질문을 보다가 나누고 싶은 목상이 생긴다면, 주어진 질문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없는 질문을 여러분이 셀원들에게 던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마주치고, 그 마주침을 셀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셀 모임의 목적이기에, 그 목적 안에서 자유롭게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241103 주일청년 설교요약 | 사무엘상 1장 19절 - 2장 11절**

## **기도응답,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첫째, 기도 응답의 열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의 경배입니다.**

(삼상 1:19)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드러진 후 입니다. 그의 기도의 결과를 보기 전에 이미 한나는 “경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이상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 상태야 말로 기도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자,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열매입니다.

“원통해서” 왔다가, “경배하며” 돌아가는 한나의 마음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갈 수 있는 기도자의 마음을 배우  
기 원합니다.

### 나눔 질문

Q.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치고 깊이 치유를 누린 예배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Q.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주셨다” 고 느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둘째, 기도 응답의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결단입니다.**

(삼상 1:20)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기도하여 받은 아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잊지 않기 위한 결단과 헌신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한나는 자신의 서원을 리마인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삼상 1:21)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엘가나와 온 집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한나가 드렸던 서원이 응답되었기에, 이번 해에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간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삼상 1:22)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뵈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러나 한나는 올해의 서원제에는 올라가지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젖 떼기 전에는 모유로만 영아를 양육할 수 있는 당시의 시대 상황상 엘리 제사장에게 아이를 무턱대고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신이 모유로 그 아이를 키워야 할 때까지는 책임지기로 하고, 젖을 떼는 그 즉시 아이를 제사장의 손에 맡기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는 “As soon as possible”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이 선한 결단, 즉각적인 순종의 마음에 눈이 갑니다.

(삼상 1:23)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 떼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 떼기까지 기다리다 가

“소견에 좋은 대로” 라는 글귀에 눈이 갑니다. 사사기의 병든 시대상을 대표하던 이 말이 이 본문에서 만큼은 그렇게 안심될 수가 없습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당신이 보기에 좋은대로” 하라는 이 말이 안심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의 보기에 좋은 대로”는 사사기 시대에 말씀도 기도도 없이 제멋대로 만들어진 “보기에 좋은대로” 의 시선과는 그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대로 하라” 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나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7 절을 함께 봅시다)

(삼상 1:28)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 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나도” 라는 이 한 구절이 한나의 기도와 신앙을 특별하게 빛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에서 기도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기도하여 원하는 것을 받아 냈으니, 이제 불일 없다는 식의 태도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나는 받아야 하는 쪽이니, 받았으면 끝났다는 식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철든 신앙인은, 받은 것에서 “시작하여” 헌신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것에 감격하며, 이제 “나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기도응답의 순간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표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기도응답을 마주쳐, 헌신이라는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헌신으로 이어지는 쉼표일 뿐입니다.

## 나눔 질문

Q. 기도하는 과정에서 삶을 바라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생각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방향” 보다 더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을 깨닫고  
그러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Q.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거나 드리는 기쁨을 느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Q.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롭게 드리고 싶은 헌신과 결단의 소원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Q.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의 손을 보태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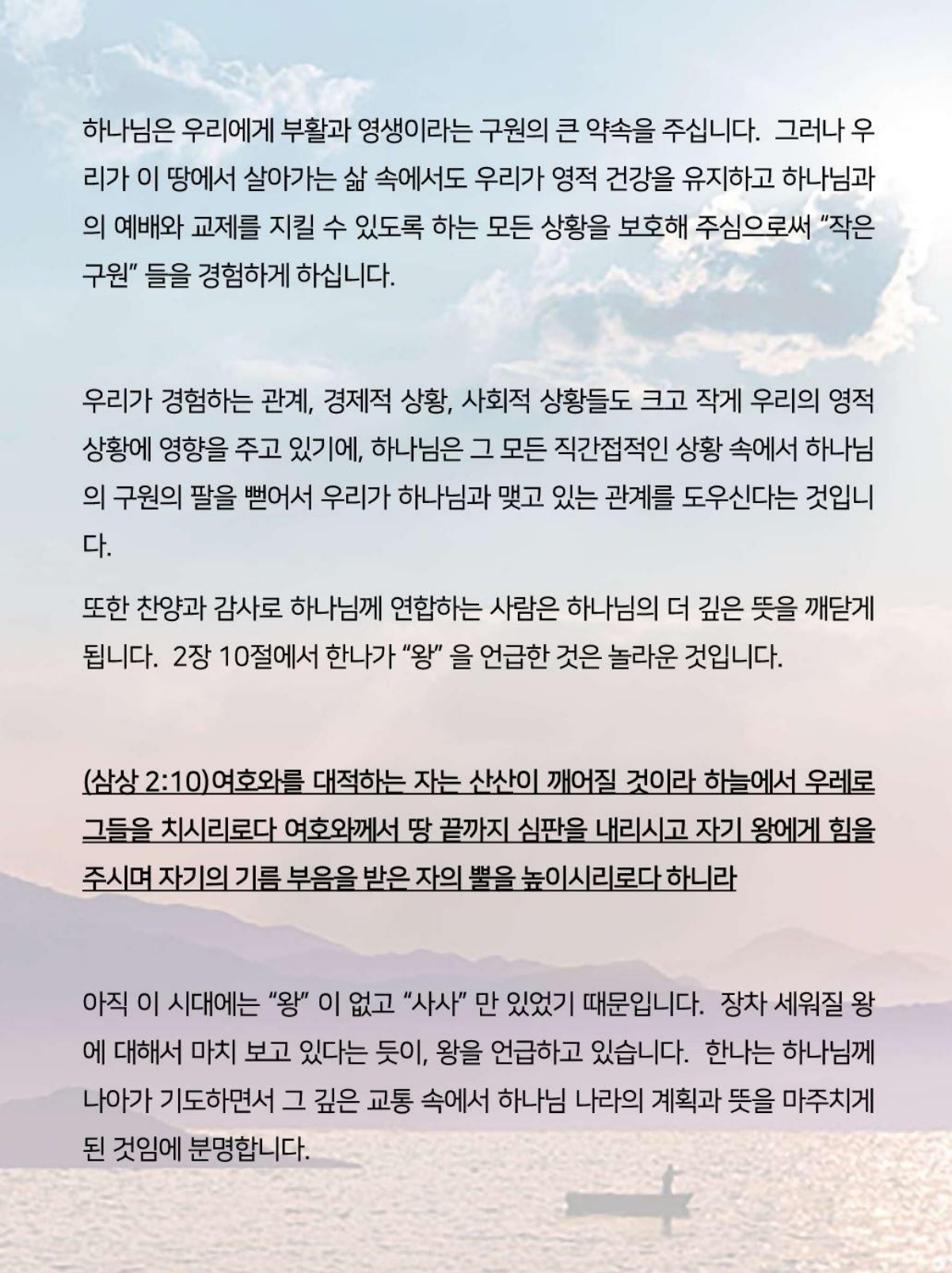
**셋째, 기도 응답의 열매는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삼상 2:1)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눅1:46

한나는 자신이 사무엘을 받은 것을 “구원” 으로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아들이 없었던 그 상황이 그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영적 시련이었기 때문입니다. 브닌나는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한나의 마음에 멍이 들게 했습니다.

일년에 한 번 드리는 소중한 제사에 멍든 가슴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한나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기 직전에 그의 영혼을 할퀴어 놓고 온갖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브닌나의 공격이었고, 한나는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브닌나는 다시는 그렇게 한나를 공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버리신 것이라든지의 공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고, 한나는 부끄러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라는 구원의 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예배와 교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상황을 보호해 주심으로써 “작은 구원” 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들도 크고 작게 우리의 영적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직간접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뻗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연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2장 10절에서 한나가 “왕” 을 언급한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삼상 2:10)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직 이 시대에는 “왕” 이 없고 “사사” 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세워질 왕에 대해서 마치 보고 있다는 듯이,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깊은 교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뜻을 마주치게 된 것임에 분명합니다.

감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합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 받은 열 중에서 아홉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응답을 받는 것 만큼이나, 어쩌면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망각한 감사의 제목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 나눔 질문

Q.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구원” 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Q. 올 한 해를 보내는 동안 잊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Q. 친구와 가정과 교회와 진로 등등, 올 한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축복하신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